

용담사간탕 투여로 호전된 대상포진 환자 치험 3례

정민영·김대수·김민정·송진수·박수연·김종한·최정화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피부과학 교실

Three cases of Herpes Zoster Improved by YongdamSaganTang

Min-Young Jung · Dae-Su Kim · Min-Jung Kim · Jin-Su Song · Jong-Han Kim · Su-Yeon Park · Jeong-Hwa Choi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effect of YongdamSaganTang on Herpes Zoster. Three patients were taken YongdamSaganTang with acupuncture, and cupping therapy. After the treatment the grade of VAS was decreased and clinical symptoms were gradually disappeared. Those results suggest that YongdamSaganTang was effective treatment of Herpes Zoster.

Key words : YongdamSaganTang, Herpes Zoster and Post-herpetic Neuralgia.

서 론

대상포진은 수두의 초감염 때 지각 신경절에 감염되어 있는 Varicella-zoster 바이러스가 다시 분열하여 신경을 따라 내려가 피부에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몸이 피곤하고 저항력이 감소된 틈을 타고 피부신경에 침입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며 그 특징이 바늘로 찌르는 듯하고 전기가 통하듯이 쭉쭉 뻗치게 된다. 또한 지속적인 관절염 통증과는 달리 아프지 않다가도 뜻하지 않게 갑자기 통증이 오며 시간적인 사이를 두고 불규칙하게 칼로 찌르는 듯

하게 아프기 때문에 특히 참기 힘든 통증이다. 병을 일으키는 유발요인으로는 육체적 피로, 정신적 갈등, 내부장기 질환, 면역기능저하가 있다¹⁾.

대상포진은 모든 나이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노인들에서 발생하며, 극히 일부의 환자들에게서 대상포진 감염이 재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대상포진은 한의학적으로 홍반과 수포가 구슬이 꿰어 묶인 듯하고 허리를 둘러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 纏腰火丹 또는 蛇串瘡이라 하였는데, 巢元方이 “甌帶瘡者, 纏腰生, 此亦風濕搏于血氣所生. 狀如甌帶, 因以爲名, 又云, 此瘡纏腰匝即 殺人”³⁾ 이라고 기술한 이후 諸家들이 다양한 명칭으로 그 원인, 증상, 치료 등을 연구하였다. 최근의 대상포진에 대한 연구로 천 등⁴⁾의 봉약침요법을 병행한 한방치료로 호전된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후 신경

교신저자: 최정화,
동신대학교부속광주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학교실
(Tel : 062-350-7217, E-mail : mining32@daum.net)
• 접수2008/06/16 • 수정2008/07/28 • 채택2008/08/04

통 환자 2례에 관한 임상보고와 김 등⁵⁾의 만성 간염환자의 耳性 대상포진 치험 1례에 관한 임상보고가 있다.

龍膽瀉肝湯은 金·元代 李⁶⁾의 《東垣十書·蘭室秘藏》에 처음 記載되었으며, 이후 많은 의가들에 의한 처방 내용과 적응증을 살펴보면, 明代 龔 등^{7,8)}은 肝膽濕熱로 인한 囊癰便毒, 下疳懸壅, 腫痛欣作, 小便澀滯, 婦人陰癢痒痛, 男子陽挺腫瘡, 出膿水 등을 치료한다 하였으며, 張⁹⁾은 《景岳全書》에서 小便赤澀, 脇瘡, 口苦寒熱 등의 肝經有餘證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王¹⁰⁾은 《醫方集解》에서 龔의 처방에 柴胡를 加하여 肝膽經實火濕熱, 脇痛耳聾, 痰溢口苦, 筋痿陰寒, 陰腫陰痛, 白濁溲血 등의 증을 치료한다고 기록하였다. 龍膽瀉肝湯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김 등¹¹⁾의 龍膽瀉肝湯의 항바이러스 활성 및 면역반응에 대한 실험적 고찰과 최 등¹²⁾의 龍膽瀉肝湯加味方이 염증치료 및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등이 있다. 대상포진이 바이러스 감염에 기인한 염증질환이므로 龍膽瀉肝湯의 항바이러스 및 항염증 효능이 대상포진의 바이러스 균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하에 대상포진 환자에게 龍膽瀉肝湯을 투여 하였다. 이에 유의한 효과를 얻었기에 본 치험례를 발표하게 되었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동신대학교 부속 광주 동신대한방병원에서 12월~1월까지 대상포진으로 치료받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게 龍膽瀉肝湯을 사용하고 치료 완료 후 차트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조사하였다.

2. 치료방법

공통적으로 각 증례에 龍膽瀉肝湯 (草龍膽, 柴

胡, 澤瀉 4g, 車前子, 生地黃, 當歸, 甘草, 黃芩, 赤茯苓, 木通, 山梔子 2g)¹³⁾을 투여하였고 患處 부위를 散刺하고 患處 부위의 열감 및 자통 해소를 도와줄 목적으로 濕附缸을 시행하였다. 또한 健側의 膽正格, 患側의 風池, 外關에 刺針하였다. 각각 증례에 따라 추가적인 外用法을 사용하였다.

3. 평가

환자의 자각적인 통증과 작열감에 대하여, 초진 시의 환자가 느끼는 통증 및 소양감, 작열감을 VAS(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 0에서 10으로 총 10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증례

1. 증례 1

- 1) 성명 : 박 ○ ○
- 2) 주소증 : 좌측 협부 통증 및 소양감
- 3) 발병일 : 07.12.10
- 4) 기타소견 : 소양감 및 통증으로 인한 불면, 舌紅, 苔白, 脈滑數
- 5) 과거력 : 당뇨, 치질
- 6) 가족력 : 어머니-당뇨
- 7) 현병력 : 상기 환자는 52세의 남자환자로 평소 다소 음주(1회/1주, 양주 2~3병/회), 흡연(반갑/회)해음. 07년 12월 초에 감기 증상으로 양방 이비인후과에서 치료 후 호전된 후

07.12.10일경 상기 증상 발생하여 본원 내원.

2. 증례 2

8) 치료방법 :

- ① 약물치료 : 龍膽瀉肝湯 (草龍膽, 柴胡, 澤瀉 4g, 車前子, 生地黃, 當歸, 甘草, 黃芩, 赤茯苓, 木通, 山梔子 2g)¹³⁾을 투여함.
- ② 침구치료 : stainless steel needles(東方醫療器 0.30×0.30mm)를 사용하여 健側의 膽正格, 患側의 風池, 外關에 자침하고 患處 부위를 散刺하였다. 또한 병변부위 주변에 濕附缸을 시행하였다.
- ③ 기타치료 : 수포가 발생하여 진무르는 부위에 止痒靜(黃蓮 30g, 黃芩 30g, 苦參 30g, 蛇床子 30g, 金銀花 30g, 75% 알콜 500 ml에 3주간 沈한 후 여과하여 사용)을 도포하였다.

1) 성명 : 이 O O

2) 주소증 : 좌측 안구부위 발적 및 종창, 안면부위 소양감, 두면부 수포

3) 발병일 : 07.12.20

4) 기타소견 : 두통, 좌측이명, 변비, 舌紅, 脈滑數

5) 과거력 : 위염, 치질, 자궁근종

6) 가족력 : 아버지-혈압

Table 1. 박 O O 의 임상경과

12월17일	입원당일 좌측 체간부위 수포발생, 소양감, 자통 호소-야간에심함. VAS 10	鍼療法, 龍膽瀉肝湯 투여
12월18일	야간에 소양감 때문에 peniramin inj.들어감, 별무호전. VAS 10. 수포가 번지거나 심해지지는 않는다함.	鍼療法, 龍膽瀉肝湯 투여
12월19일	peniramin inj.후에도 소양감 큰 변화없음. 자통은 호전됨. VAS 6.	鍼療法, 龍膽瀉肝湯 투여 止痒靜 도포
12월20일	소양감, 자통 호전. VAS 5	鍼療法, 龍膽瀉肝湯 투여
12월21일	수포 소실되고 부위도 줄어듦. 소양감 자통 VAS 4.	鍼療法, 龍膽瀉肝湯 투여
12월22일	소양감, 자통 VAS 2	鍼療法, 龍膽瀉肝湯 투여

Table 2. 이 O O 의 임상경과

12월 24일	입원당일. 좌측 안구쪽 통증 및 발적, 안면부 열감및 부종, 소양증, 안면부, 두부의 수포 발생, 이명호소. VAS 10	鍼療法, 龍膽瀉肝湯 투여
12월 25일	상기 증상 아직 여전 VAS 10. 이명 줄어듦.	鍼療法, 龍膽瀉肝湯 투여
12월 26일	상기 증상 여전하시나 수포가 가라앉는 느낌 든다함 VAS 8. 이명 소실.	鍼療法, 龍膽瀉肝湯 투여 一效散 투여
12월 27일	가려움증 및 열감 호전 VAS 6. 수포 가라앉으며 진물나는 것도 호전.	鍼療法, 龍膽瀉肝湯 투여
12월 28일	안구부위 가려움증 및 통증 VAS 5. 수포 소실.	鍼療法, 龍膽瀉肝湯 투여
12월 29일	소양감 및 통증 VAS 2. 아직 머릿속이 가렵다함.	鍼療法, 龍膽瀉肝湯 투여
12월 30일	열감도 거의 소실 VAS 1. 머릿속 가려움증도 호전.	鍼療法, 龍膽瀉肝湯 투여
12월 31일	30일과 동일. VAS 1	鍼療法, 龍膽瀉肝湯 투여

7) 현병력 : 상기 환자는 51세의 여자환자로 평소 별무 음주 흡연해오심. 12월10일경에 감기 증상 발생하시어 약국에서 양약 자가 복용 해 오던 중 07.12월 20일경 상기 증상 발생하여 본원 내원. 내원전 피부과에서 양약 처방받아 음.

8) 치료방법

- ① 약물치료 : 龍膽瀉肝湯 (草龍膽, 柴胡, 澤瀉 4g, 車前子, 生地黃, 當歸, 甘草, 黃芩, 赤茯苓, 木通, 山梔子 2g)¹³⁾을 투여함.
- ② 침구치료 : stainless steel needles(東方醫療器 0.30×0.30mm)를 사용하여 健側의 膽正格, 患側의 風池, 外關에 자침하고 患處 부위를 散刺하였다. 또한 병변부위 주변에 濕附缸을 시행하였다.
- ③ 기타치료 : 소양증이 심한 부위에 一效散(爐甘石(煨) 150g, 滑石 100g, 朱沙 50g, 龍腦 15g를 가루내어 사용) 을 도포케 하였다.

3. 증례 3

- 1) 성명 : 김 O O
- 2) 주소증 : 우측협부 통증, 수포
- 3) 발병일 : 08.1.14

4) 기타소견 : 별무. 舌尖紅, 舌微乾, 脈弦

5) 과거력 : 별무

6) 가족력 : 별무

7) 현병력 ; 상기 환자는 31세의 여자환자로 평소 별무 음주. 흡연 해음. 08.1.14 스키장에 다녀온 후로 상기 증상 나타나 화상입은 줄 알고 자가치료 중 본원 외래로 내원.

8) 치료방법

- ① 약물치료 : 龍膽瀉肝湯 (草龍膽, 柴胡, 澤瀉 4g, 車前子, 生地黃, 當歸, 甘草, 黃芩, 赤茯苓, 木通, 山梔子 2g)¹³⁾을 투여함.
- ② 침구치료 : stainless steel needles(東方醫療器 0.30×0.30mm)를 사용하여 健側의 膽正格, 患側의 風池, 外關에 자침하고 患處 부위를 散刺하였다.
- ③ 기타치료 : 소양증이 심한 부위에 黃連解毒湯藥鍼液(大韓藥鍼學會)¹⁴⁾으로 0.5cc syringe를 이용하여 주입함.

고 찰

대상포진은 수두의 초기감염 때 지각 신경절에 감염되어 있는 Varicella-zoster 바이러스가 다시

Table 3. 김 O O 의 임상경과

1월18일	내원당일. 우측 협부의 수포, 작열감, 소양감 VAS 10	鍼療法, 藥鍼
1월19일	우측 협부의 수포, 작열감, 소양감 VAS 9	龍膽瀉肝湯 투여시작 鍼療法, 藥鍼
1월24일	우측 협부의 수포, 작열감, 소양감 VAS 0 수포 소실, 가려움증, 통증 없다고함	鍼療法, 藥鍼

분열하여 신경을 따라 내려가 피부에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¹⁾.

대상포진은 모든 나이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노인들에서 발생하며, 극히 일부의 환자들에게서 대상포진 감염이 재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보통 침범된 피부절을 따라 동통과 감각이상이 선행된 후에 일측성으로 피부절을 따라 홍반위에 군집된 소수포들이 발생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흔히 침범되는 피부절은 흉부 및 뇌신경 부위이다. 대개 홍반위에 발생한 군집성 소수포는 수일 이내 농포가 되며 가피를 형성하고 3~5주 사이에 치료된다. 국소 림프절의 종창이 흔하고 쇠약감과 경미한 발열이 동반된다. 30세 이하에서는 통증을 거의 호소하지 않으나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동통이 심하게 나타난다. 대상포진이 침범한 신경절에 따라 독특한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삼차신경의 안지가 침범되는 예는 전 대상포진의 약 5-10%를 차지하며 이때는 수포성 발진이 눈 위에서 두정부까지 일측성으로 나타난다. 만약 각막에도 수포가 발생하면 쉽게 터지고 반흔이 발생하여 실명에 이를 수 있다.

Ramsay-Hunt 증후군은 제 7뇌신경을 침범한 경우로 안면마비와 외이 및 고막에 대상포진이 발생하여 통증, 현기증, 이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상포진의 증상은 피부증상, 자각증상, 전신증상, 포진 후 동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부증상은 대부분 먼저 띠 모양의 홍색반인 구진이 빠른 속도로 녹두-황두 크기의 수포로 변한다. 3~5개의 군락으로 때 지어 한 곳 혹은 여로 곳에서 취집되어 띠 모양으로 배열된다. 수포 군락의 사이사이에는 정상 피부이다. 수포내의 액체는 초기에는 투명하였다가 5~6일 후에 혼탁한 액체로 변한다. 심한 환자는 혈포, 혹은 피사가 있으며 증상이 경미한 사람은 약간의 피부홍저 또는 수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자각증상은 극심한 통증이 본 병의

주요 특징이다. 발병 전에 먼저 자통을 느낀 후에 수일 후에 수포가 일어난다. 혹은 동통과 수포가 동시에 나타난다. 또는 먼저 수포가 일어난 후에 동통이 발생한다. 동통의 완급경중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에 있어 통증이 경미하거나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노인에서는 통증이 심하고, 지속시간이 길어 심지어 반 년 이상일 경우도 있다. 額部에 발생한 환자는 동통이 극심하여 참을 수 없으며 부근에 凝核腫大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전신증상으로는 발병 전 혹은 수포가 일어날 때 경도의 發熱, 身疲乏力, 胃納不佳, 苔薄黃, 脈弦數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額部の 蛇串瘡는 삼차신경의 상지에 침범되어 병정이 심하면 안구에 손상을 미쳐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실명할 수 있다. 암 환자가 만약 본 질환에 이완되면 고열, 두통을 동반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사망에 이른다¹⁵⁾.

포진 후 동통의 경우 피부병변이 사라지고 나서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동통, 또는 피부 병변 처음 발생 후 30일 후에 발생한 동통을 말한다.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대상포진 환자의 8~15%에서 발생하며 60세 이상에서는 50%에서 발생한다. 부위별로는 안구 대상 포진 환자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50%에서 3개월 내에 호전되며, 70%에서 1년 내에 호전된다¹⁾.

대상포진은 효과적인 예방책이 없으며 치료에는 주로 acyclovir가 이용되며 항바이러스 치료시 증세의 경감과 수두와 대상포진 경과가 짧아지나 포진 후 신경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진 후 신경통의 예방을 위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사용되어 왔으나 대부분 효과가 없으며 사용하더라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치료를 위한 아스피린 도포요법, 저출력 레이저 요법, 신경차단술, 냉습포요법, TENS, 최면요법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적절한 치료

범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⁶⁻¹⁹⁾.

대상포진은 한의학적으로 흥반과 수포가 구슬이 꿰어 묶인 듯하고 허리를 둘러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 纏腰火丹 또는 蛇串瘡이라 하였는데, 巢元方이 “飭帶瘡者, 繞腰生, 此亦風濕搏于血氣所生. 狀如飭帶, 因以爲名, 又云, 此瘡繞腰匝即 殺人.” 이라고 기술한 이후 諸家들이 다양한 명칭으로 그 원인, 증상, 치료 등을 연구하였다³⁾.

대상포진은 肝經火盛, 脾胃濕熱, 氣滯血瘀 型으로 나누어 辨證하며 肝經火盛형의 경우 頭面 胸脇部의 蛇串瘡에 해당하며 清肝火, 利濕熱의 治法을 응용한다. 脾經濕熱의 경우 腹部, 大腿部의 蛇串瘡에 해당하며 健脾利濕清熱의 治法을 응용한다. 氣滯血瘀의 경우 노년환자에서 보이며 皮疹이 소퇴된 후에도 여전히 刺痛이 소실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利氣活血, 重鎮止痛의 治法을 사용한다¹⁵⁾.

현대에서는 肝心二經의 風火의 凝結, 脾肺經 濕熱의 축적, 熱毒熾盛으로 인한 營血의 燒灼, 內濕의 정체, 氣虛로 인한 血瘀와 濕聚로 형성된다고 보아 龍膽瀉肝湯, 栝葉散, 除濕胃苓湯, 柴胡清肝湯, 清營湯, 益氣活血散瘀湯 등을 사용한다고 하였다^{20,21)}. 최근의 대상포진에 대한 연구로 천 등⁴⁾의 봉약침요법을 병행한 한방치료로 호전된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후 신경통 환자 2례에 관한 임상보고와 김 등⁵⁾의 만성 간염환자의 耳性 대상포진 치료 1례에 관한 임상보고가 있다.

龍膽瀉肝湯은 金元代 李⁴⁾의 《東垣十書·蘭室秘藏》에 처음 記載되었으며, 이후 많은 의가들에 의한 처방 내용과 적응증을 살펴보면, 明代 龔 등^{5,6)}은 肝膽濕熱로 인한 囊癰便毒, 下疳懸壔, 腫痛欣作, 小便澀滯, 婦人陰癢痒痛, 男子陽挺腫瘡, 出膿水 등을 치료한다 하였으며, 張⁷⁾은 《景岳全書》에서 小便赤澀, 脇瘡, 口苦寒熱 등의 肝經有餘證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王⁸⁾은 《醫方集解》에서 龔의 처방에 柴胡를 加하여 肝膽經實火濕熱, 脇痛耳聾, 痰溢口苦, 筋痿陰寒, 陰腫陰痛, 白濁溲血 등의 증을

치료한다고 기록하였다. 龍膽瀉肝湯은 小柴胡湯에서 人蔘, 半夏 대신 草龍膽, 澤瀉, 導赤散, 車前子, 白茯苓, 當歸, 梔子를 배합한 방제로 볼 수 있다. 柴胡, 草龍膽, 梔子は 肝經의 濕熱을 내려주고 澤瀉, 茯苓, 車前子, 導赤散은 소변을 통하여 濕熱邪를 배출한다. 그러므로 본방은 實證의 皮膚感染症에 사용한다²²⁾. 龍膽瀉肝湯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김 등¹¹⁾의 龍膽瀉肝湯의 항바이러스 활성 및 면역 반응에 대한 실험적 고찰과 최 등¹²⁾의 龍膽瀉肝湯 加味方이 염증치료 및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상기 내용을 현대적 내용으로 해석해보면 龍膽瀉肝湯이 스트레스(肝經火)로 인해 발생한 濕熱질환, 즉 염증질환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실험적 연구로도 밝혀졌다. 이에 저자는 스트레스 및 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대상포진에도 龍膽瀉肝湯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여 07년 12월부터 08년 1월 사이 본원에서 대상포진으로 입원한 환자 및 외래환자에게 龍膽瀉肝湯을 투여 하였다. 단, 脈이 滑數한 경우에 투여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본 증례에서 증례 1의 경우, 52세 남자환자로, 2007년 12월 17일 초진시 좌측 협부에 통증 및 소양감, 수포성 병변으로 내원하였다. 脈은 數滑하고 舌紅하여 肝經의 火가 성한 것으로 판단, 龍膽瀉肝湯을 투여하고 健側의 膽正格, 患側의 風池, 外關에 자침하고 患處부위에 散刺하였다. 야간 소양감이 심하여 peniramin inj. 시행하였으나 별무 호전되었고 치료 3일후부터 자통이 점차 줄어들면서 소양감도 호전되기 시작, 치료 6일 후 VAS 2의 상태로 퇴원하였다. 증례 2의 경우, 51세의 여환으로 07년 12월 10일 경 감기증상으로 양약 복용 해오시던 중 12월 20일 경부터 좌측 안구 부위 발적 및 종창, 안면부위 소양감, 두변부 수포 증상으로 12월 24일 본원에 내원하였고, 추가로 耳鳴 증상 호소하였다. 舌紅, 脈滑數 하고 少陽經上의

병변부위를 근거로 龍膽瀉肝湯을 투여하고 健側의 膽正格, 患側의 風池, 外關에 자침하고 患處부위에 散刺하였다. 치료 2일 후, 耳鳴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3일후부터 수포가 진정되기 시작하였고, 소양감과 열감이 점차 소실되기 시작하여 치료 9일 후 VAS 1의 상태로 퇴원하였다. 증례 3에서는 31세 여환이 스키장에 다녀오신 후부터 우측 협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여 본원 외래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일 健側의 膽正格, 患側의 風池, 外關에 자침하고 患處부위에 散刺하였다.

추가로 黃連解毒湯 藥針을 병변부 주위에 추가로 시술하였다. 초기 대상포진 치료를 위해 龍膽瀉肝湯을 투여 키로 결정하고 다음날 내원토록 하였다. 다음날 내원시 수포와 작열감, 소양감이 VAS 9정도로 호전되신 느낌 있으셨고 龍膽瀉肝湯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뒤에 다시 내원토록 하였으나 환자분 일주일 후에 내원하였다. 내원시 우측 협부의 수포는 대부분 아물어 있었고 가려움증, 통증이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침구요법과 약침요법을 시행한 후 치료를 종료하였다.

위의 증례로 보아, 대상포진에 龍膽瀉肝湯을 투여한 결과 유의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염증치료 및 피부치료에서 서양의학이 담당하는 부분이 많고 한방에서 염증치료에 효과적인 약물 및 처방이 부족한 실정에서 위의 증례는 보다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보다 많은 임상경험과 연구가 병행된다면, 대상포진을 비롯한 여타 피부질환에 한방치료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요 약

본 증례의 경우 대상포진에 龍膽瀉肝湯을 사용하여 유의한 효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강원형. 피부질환 아틀라스. 서울:한미의학. 2002:291-5.
2.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 서울:여문각. 2001:352-3.
3. 巢元方, 諸病源候論較澤 下冊.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2:984.
4. 천승철, 지선영, 이상근. 봉약침요법을 병행한 한방치료로 호전된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후 신경통 환자 2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4;17(2):120-6.
5. 김민희, 김자혜, 윤화정, 고우신. 만성간염환자의 이성 대상포진 치험 1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5;18(2):80-5.
6. 공신. 만병회춘. 서울:행림서원. 1975:197.
7. 왕궁당. 외과준승. 대북:신문출판공사. 1974:9-13.
8. 오렴. 의종금감(중). 서울:대성문화사. 1986:266.
9. 장경악, 경악전서 권하. 서울:대성문화사. 1988:620.
10. 汪昂. 원본의방집해. 서울:대성문화사. 1989:303-4.
11. 김남권, 김종한, 박규상, 황충연. 용담사간탕의 항바이러스 활성 및 면역반응에 대한 실험적 고찰. 대한외과과학회지. 1998;11(1):1-22.
12. 최은규, 노석선. 용담사간탕가미방이 염증치료 및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4;17(2):39-47.
13. 황도연. 신증방약합편. 서울:영림사. 2002:259, 311.
14. 설현, 육태환. 肩井穴 黃連解毒湯藥鍼이 심박변이율(HRV)에 미치는 영향. 大韓針灸學會誌. 2004;21(6):45.
15. 전국 한의과대학 피부외과학 교재편찬 위원회. 한의피부외과학. 부산: 2007:427-31.

16. 문원배, 김해규, 백승황, 김인세, 정규섭. 대상포진성 신경통에 대한 에테르-아스피린 도포요법. 대한통증학회지. 1989;3(1):40-3.
17. 배운호, 황정환, 민병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통증관리. 대한통증학회지. 1988;1(1):9-15.
18. 김해규, 김인세.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관리. 대한통증학회지. 1989;2(2):129-34.
19. 김영조.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피부과학회지. 2001;39(12):1364-9.
20. 蔡炳允 韓方外科. 제5판. 서울:고문사. 1991: 197-8.
21. 지선영. 동의피부과학. 서울:일중사 1996:255-7.
22. 윤용갑. 동의방제와 처방해설. 서울:의성당. 1998:782.